한생각 잘하면 찰나에 지옥도 무너져

나는 누구입니까

문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갑니까? 인과에 따라 갑니까? 그 인과는 누가 만든 겁니까? 그 인과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고전적인 질문이겠죠?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을 비우게 만드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인공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그 주인공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나는 누구인가. 주인공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 것에 대해 항상 얘기해 드리죠. 수박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작년 수박 씨를 심어서 내가 됐는데 내가 "이게 뭣고?" 할 때는 벌써 그 시대가 지났다는 얘깁니다. 자기라는 수박이 "이게 뭣고?" 하지말고 수박은 그대로 수박이

>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갑니까
>
> 과거와 현재의 나 상봉하면 알수 있어

며 수박 속에는 반드시 수박 씨가 있다는 걸 알아라 이겁니다.

그렇듯이 바로 들어가야지 이게 뭔고 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있으란 말입니까? 난 급해서도 그렇게 못 있어요. 그냥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박은 수박 씨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수박 씨는 봄이 오면 심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열려서 만 중생을 다 먹이고도 되 남아서 또 먹이고 또 먹이고 해도 끝간데 없이 먹이는 것을 믿고 일체를 자기 주인공에 일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생각으로 주인공이 무엇인가하고 그냥 등한시하고 가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주인공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불종자며, 바로 자기 몸과 마음과 모든 행이 종합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주인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주인공 밖에는 자기를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해드려도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일거수 일투족 뿌리와 싹과 같이 붙어 있는데,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말도 붙지 않는 거죠. 종자를 심으면 뿌리로 화하고 뿌리로 화해서 싹을 일으킵니다.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그 싹은 바로 제 뿌리를 믿어야 싹과 뿌리가 상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즉 말하자면, 과거에 살던 나와 현재에 사는 내가 상봉을 해야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싹이 뿌리에 의해서만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싹은 뿌리를 진정 의심 없이 믿고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옛날처럼 내가 싹이 어디 있는지 뿌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머리가 깨이고 물리를 알고, 또 과학이 어떤 건지 이론으로라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방에서도 보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게 뭣고?' 하고서 십 년을, 백 년을 있어봐도 딱 깨서 직접 먹어보지 못한다면 맛도 모르고, 종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무조건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고 거기다가 다 맡겨라!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벌레 먹는 잎새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거를 다 거기다가 맡겨라! 때에 따라서는 이 몸이 아프면, 바로 마음 도리에서 약사가 돼 줍니다, 스스로. 그 도리를 그래서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프면 약사가 돼 주고, 그것도 반야줄을 쥐고 즉 말하자면, 내 주인공 그 자리를, 뿌리를 쥐고서 '너만이 할 수 있어!' 할 때에 순간 우리가 집에서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듯이 그렇게 거기다가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게 될 때, 바로 약사로 화한단 말입니다. 화해서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시는데, 왜 못 믿고 바깥으로 그렇게 끄달리느냐 이 겁니다. 그러면 약사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안되는 일이 있거나 그런다면 '바로 너만이 이끌어줄 수 있지 않아' 할 때에 관세음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사는 걸 보면 찰나찰나, 내가 이번에는 아버지가 되겠다 형님을 하겠다 이런 말도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동생이 "형님" 하면 형님이 되고, "얘야, 아우야." 하면 아우가 되고, "자네 있나?" 하면 사위가 되고, 이렇게 찰나찰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따지고 보면,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보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부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살림,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인 줄을 아시고 생활 속에서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청정의 참뜻 알고 싶습니다

문 청정의 참뜻을 알고 싶습니다. 청정이 청정이 아니고 더러움이 더러움이 아니라 하셨는데, 그러면 깨끗하다 더럽다하고 따지는 그 마음을 놓고 보는 것이 청정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답 청정하다 하는 것은 더럽고 깨끗하다 하고 구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고 더럽지 않은 것을, 일체 만법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내가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청정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어찌 청정한 줄 알았으리까?' 하는 얘깁니다. 그 청정한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모든 것은 주인공에 맡겨 놔라'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만약에 처음부터 그것을 맡겨 놓지 않는다면 한 군데서 들고나는 청정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청정함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데 그것을 더럽다고 하겠습니까? 깨끗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청정함이라는 것은 공생·공용·공체·공식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진리를 캐치한 그 지혜가 바로 청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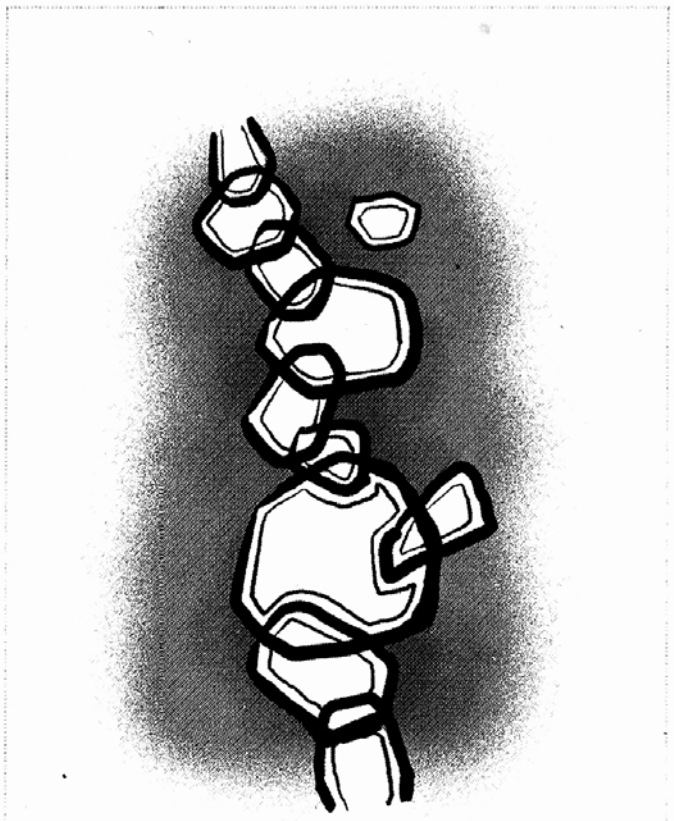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새것 입력하면 앞에 넣은건 없어져
>
> 일체만법 하나도 빠짐없어야 청정

이세상은 정말 苦海인지요

문 불교에서 나를 부정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변화해서 너도 되고 그래서 모두 한마음이다 등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 이념과 비슷한 것 일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결과적으로 나를 부정하니까 마음은 편한 것 같긴 한데 욕심이 없어져 사회의 발전도 없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고해입니까? 그냥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도 되는데, 동물의 세계처럼 일부 약육강식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같은 여건에서 그렇고 선진국에서는 사회발전도 많이 이루어져서 노력하면 다 살만한 세상이 되어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삶의 보람은 일을 통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사회발전을 이룩하고 거기에 대가를 받고 또 여가를 즐기고 그렇게 사는 데 있는 것 아닐까요?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적정하게 일하고 돈벌어서 사랑도 하고 놀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으면 뭐 그렇게 인생에 미련이 있습니까? 고해라는 것은 패배자의 자기변명 아닐까요?

답 예전에 부처님께서 최초에 사성제를 설하신 것은 '고(苦)' 하나만 없앴다면, 집(集)도 없고 멸(滅)도 없고 도(道)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돼요.

절에 다닌다는 것은 밥을 놓고 떡을 놓고 빌러 다니면서 도깨비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 덩어리는 이 세상에 사람뿐만 아니라 사생이 다 그렇죠. 사생이다 하면 벌레뿐만 아니라 무정물도 다 들고요. 그러니 그것을 모두 따진다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차원이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수 억겁 광년을 거쳐서 인간까지 되어 오기에는,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생겼고, 그 생명이 생김으로써 수없이 거듭거듭 모습을 바꿔가면서 진화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습과 욕심과 또는 의식 자체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인과로서. 원수를 졌든, 또 원수가 아니든, 선이든 악이든, 살면서 수 없는 나날을 거듭거듭 해오면서 인연 지은 게 바로 이 몸뚱이입니다.

여러분 몸뚱이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아서 인간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걸 왜 '고 덩어리'라고 하는가? 이것이 순간순간 바뀌지면서 병도 나게 하고, 원수를 갚아야지 하는 그 업보로 인연이 된 거는 또 그렇게 인연을 만나 돌아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수없이 돌아가면서 때로는 아프게도 만들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우환이 오게도 만들고, 때로는 웃게도 만들고, 어떤 때에는 싸움을 하게도 만들고, 어떤 때에는 사랑을 하게도 만들고, 선의 인연이 거기에 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돌아가고 저렇게도 돌아가고 그러는 원인이 여러분 몸뚱이 속에 수 십억 마리가 지금 모습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에서만 그러냐?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연방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듭니다. 그렇다면 바깥의 일이 될 것도 안되죠. 이게 인과예요, 업보고. 그러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직접적으로 전부 나온단 말입니다. 말도 입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전부 그 자리에서, 또 그놈들이 아니라면 이 육체를 쓰고 있을 수도 없고, 그놈들이 아니라면 부처가 생길 수도 없고…. 참 묘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 하나가 나오는 것이 일초 일초를 거듭거듭 돌아가면서 고정됨이 없는 거죠.

그러니 나의 몸뚱이 속에서 그렇게 독안에 들어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인과로서 업이 자꾸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를 거기다가 되놔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팔랑개비가 돌아가면서 색깔을 내는 그 자체가, 대에 의존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대에다 놔라 이겁니다. 막대기. 그것을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한 겁니다. 거기에 다 되놓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을 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테이프에 녹음이 돼 있는 데다가 또 다시 녹음을 하면 테이프에 앞서 입력된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앞서 넣은 것은 없어지고 새로 넣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새로 오는 거를 넣는다면 앞서 넣은 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연방 그릇은 비면서, 새로운 샘물이 나오는 거 연방 퍼 먹어가면서, 그릇은 항상 비어 있으니 항상 새물이 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 한생각을 잘하면, 오무간 지옥이 무너지고 독사 지옥이 무너지고, 전체가 무너진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신다면 땅을 두드리고 울어도 시원치 않아요. 그리고 일초 일초가 따로 없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 도리를 가슴 깊이 새겨보신다면, 우리 순간 순간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걸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불교를 알고 싶습니다

문 저는 불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답 불교는 어느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든 가톨릭교인이든 불교인이든 그대로 불(佛)입니다. 불교는 어디 하나에 국한돼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끝간데 없이, 시발점도 종점도 없는 진리를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은 영원한 생명이요, 교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자체가 바로 교거든요. 그러니 불교라는 단어는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이 전부 불교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벌레 하나도 생명 없는 게 없으니깐 공체로서 공생하고 공용하고 공식하고 있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공생, 공용, 공체, 공식하고 있는데 어찌 불교가 따로 있다고 하겠습니까? 생명이 따로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고 우리가 말하고 천차만별로 살아나가는 이 자체가 따로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 우리는 진리를 연구하고 실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어느 교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막론해 놓고 다 마음공부를 하라는 거죠. 자기가 직접 연구하고 실험하고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살아나가고 사랑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또는 주고받지 않아도 벌써 주고받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진리가 된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 너를 깨달아서 본다면 일체가 둘이 아닌 도리를 알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갑니까. 지금 얘기하자면 어떠한 애고가 생겼다거나 병고가 생겼다거나 어떠한 문제가 앞에 닥치면, 칠성님한테 빌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좋은 데로 못 간다 하면 지장보살 찾고, 병이 걸렸다 하면 약사보살 찾고, 물에 가면 용신을 찾고, 길을 가다가는 지신을 찾고, 그걸 말로 다 할 수 없으리만큼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대로 찾습니다.

> 잘되기를 바라면서 관하고 있는데…
>
> 놓으려면 놓았다는 생각마저 놓아야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한마음 가지고 자유스럽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일일이 타의에다가 상대를 두고 빌면서 살겠습니까. 상대를 두고 빌어 봤자 공덕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해결도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못났든 잘났든 여러분을 발견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노예로서 세세생생에 끄달리면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모든 것은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하고도 가설이 돼 있다 이겁니다. 우주간 법계의 근본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되고 가설이 돼 있단 얘깁니다.

알기 쉽게 말을 하자니 이렇게 밖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불교를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멀리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말고 내 마음 안에 일체의 근본과 둘 아니게 직결된 나의 근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든 일들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이며 내가 '나' 라고 믿는 지금의 '나' 는 지금까지의 업으로 인해 생각되어지는 '나'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 의 시작은 무엇이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디에 되돌려 놓아야 하는지요.

답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뭘 먼 데서 찾습니까? 그대로 아닙니까? 한 사람이 스스로 열 가지 행을 한

☞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